



선교하는 제자회

(Disciples in Mission)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필요.
(Everyone. Everywhere. Every Need.)

2026 제자회 선교 주간
(Disciples Mission Week 2026)
2026년 9월 8-13일



목차 (Table of Contents)

소개	3
Chris Dorsey 목사 (Disciples Home Missions 회장 겸 CEO)	
Derrick L. Perkins Sr. 목사 (회중 활력 및 혁신 담당 디렉터, Disciples Home Missions)	
작품 및 설명	4
Mollie Donihe Wilkerson 목사, 창조적 영성 사역 담당, Ridglea Christian Church, 텍사스주 포트워스	
예배로의 부름	5
Daniel Lyvers 목사, 담임 목사, First Christian Church, 테네시주 채터누가	
묵상과 기도	5
Jean-Daniel O'Donnada 목사, 캐나다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대표 목사	
주제 성서 본문: 이사야 58:6-10 (표준새번역)	6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영상	7
Laura Ann Phillips 목사,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프로그램 디렉터, Disciples Home Missions	
성찬 묵상	9
Adam Harmon 목사, 지방회장, Christian Church in Georgia	
봉헌 묵상/나눔의 순간	11
Melissa St. Clair 목사, 신앙과 나눔 사역 담당 목사 겸 신앙과 나눔 센터 상임이사	
봉헌을 위한 기도	13
Zaemelys Ramos-Rodriguez, 평신도 지도자, Casa de Refugio Christian Church, 캘리포니아주 코비나	
설교를 위한 도입	14
Lee Hull Moses 목사, 담임 목사, Central Christian Church,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사전 녹화 설교	18
Chris Dorsey 목사, Disciples Home Missions 회장 겸 CEO,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응답의 기도	19
韓敬歆 및 Ching-Hsin (Steven) Han, 恩典基督教會 - First Christian Church, 캘리포니아주 엘몬테	
축하의 시간	20
Brenda Booth 목사, 상임이사, Isaiah 58 Ministries,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축도	22
Gabrielle Davis 사역자, Light of the World Christian Church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및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학생	
감사의 말씀	23

예배 안내서 소개 (Introduction to Worship Guide)

제자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신앙 지도자들이 언약 안에 함께 모여 2026 제자회 선교 주간 예배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회중들이 "선교하는 제자회.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필요."라는 주제를 구현하며 선교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10절에 근거한 이 안내서는 참된 예배가 정의, 자비, 나눔, 섬김의 행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불의의 결박을 풀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라는 예언자의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우리의 사역 동반자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예배로 모일 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초청받습니다.

이 안내서는 2026년 9월 13일 주일, 제자회 선교 주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도문, 작품, 응답의 기도, 설교 도움말, 성찬 묵상, 이야기 자료, 음악 추천, 나눔의 순간, 축하 행사 아이디어는 개인적, 공동체적 성찰과 감동,

예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회중이 큰 도시든, 교외이든, 농촌이든 작은 마을에 있든, 오래된 교회든 새로 개척된 교회든, 이 자료들은 여러분의 회중의 사역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하고 기념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 안내서가 각 회중이 성전 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돕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지역사회와 그 너머에, 소망과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서, 모든 필요에 응답하며 섬기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회 선교 주간 기획 위원회, Disciples Home Missions 직원들, 예배 안내서에 기여해 주신 분들, 지방회 협의회들, 회중들, 그리고 협력하는 총회 사역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자회 선교 주간은 우리가 함께하는 언약적 삶의 강력한 표현이며, 그 성공은 여러분의 신실한 참여와 나눔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증언과 선교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Chris Dorsey 목사, 회장 겸 CEO

Derrick L. Perkins Sr. 목사, 회중 활력 및 혁신 담당 디렉터 겸 합병 담당자

Disciples in Mission

Everyone. Everywhere. Every Need.



작품 및 작가의 말 (Artwork and Artist Statement)



"Break Forth"(쏟아오르다, 2026), 스티치 패브릭

Mollie Donihe Wilkerson 목사, 창조적 영성 사역 담당

Ridglea Christian Church, 텍사스주 포트워스

작가의 말 (Artist Statement)

여러 겹의 스티치 원단을 통해 이 작품은 이사야 58장 6-10절의 해방적 주제를 담아냅니다. 작품 표면을 가로지르는 갈라진 틈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은 단절과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갈라진 표면을 뚫고 비추는 빛줄기는 "새벽 햇살 같이 비칠 것"(8절)이라는 말씀을 나타냅니다. 꽃들 아래에는 끊어진 사슬이 놓여 있어, "불의의 결박을 풀어 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6절) 이사야의 해방의 비전을 반영합니다.

치유가 "빠를" 것(8절)이라는 말씀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의 상징 속에 나타납니다. 벌 한 마리가 꽃들을 찾아왔다가 빛 줄기 방향으로 이동하며, 수분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미래의 번영에 대한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친 가장자리와 다양한 질감이 함께 짜여진 이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모든 이를 위한 새로운 생명이 가능해질 때까지 세상의 상처를 돌보는 거룩한 일을 성찰하도록 초청합니다.

이 작품은 제자회 선교 주간을 위해 예배용 섬유 예술가인 Mollie Donihe Wilkerson 목사가 제작했습니다. Mollie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Ridglea Christian Church의 창조적 영성 사역 담당 목사입니다. 그녀의 작품과 성직자 스톨은 molliedonihe.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Mollie Donihe는 합의된 프로젝트/행사(2026 제자회 선교 주간)와 관련 홍보 자료에 한하여,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허락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사용—상품화, 기금 모금, 재판매, 관련 없는 자료에 게재, 지속적인 조직적 사용 등—은 추가적인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작가 크레딧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info@molliedonihe.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Daniel Lyvers 목사, 담임목사

First Christian Church - 테네시주 채터누가

이사야 58장에서 영감을 받음

인도자: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회 중: 여기, 찬양과 말씀 속에서, 기도와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을 구합니다.

인도자: 불의의 결박을 풀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회 중: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주린 자와 우리의 떡을 나누며, 존엄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데려오는 것.

인도자: 우리는 열린 상을 베푸시고 정의와 온전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회 중: 여기, 찬양과 말씀 속에서, 기도와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떠오르는 사랑과 빛의 신앙으로 형성됩니다.



묵상과 기도 (Reflection and Prayer)

Jean-Daniel O'Donnada 목사

캐나다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대표 목사

캐나다도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하나의 이야기, 곧 자신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현실보다 이상을 더 많이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한 구절은 캐나다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The True North, Strong and Free (진실한 북쪽, 강하고 자유로운)." 물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 뿐인 것도 아니고, 우리만 강하거나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들려주는 캐나다의 자기 이해를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함께 읽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지를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희생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나눔을 실천했다는 만족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의료제도를 함께 지탱하기 위해 기꺼이 세금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에는 억압받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집을 잃은 이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 복은 국경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흘러가도록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은 어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겨울이면 오후 4시에 해가 지고, 캐나다 최북단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 동안 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날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퀘벡은 또한 빛을 잘 아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이웃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너무나 쉽게 자기만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 맡기신 예언자적 부르심은 자신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자신이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자유와 빛과 따스함,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햇살을 누릴 수 있을 때, 머물 집과 입을 옷이 있을 때, 건강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사가 나눔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직도 그 모든 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를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주제 성서 (Theme Scripture)

주제 성서 본문: 이사야 58장 6-10절 (표준새번역)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 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찬송, 성가, 영성, 가스펠, 찬양 음악 추천

아래 제안 사항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한국어 버전으로 활용하시거나, 귀 교회의 상황과 주제에 적합한 다른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All Belong Here](#) – The Many
- [Called as Partners in Christ's Service](#), Chalice Hymnal #453
- [Call To Action](#) – Anthony Brown & Group TherAPy
- [Christ, Be Our Light](#) – Bernadette Farrell
- [Draw the Circle Wide](#) – Mark Miller
- [For Everyone Born](#) – Spirit Song Choir 의 “For Everyone Born” (작사: Brian Mann/Shirley Erena Murray, 편곡: Tom Trenney)
- [God of the Poor](#) – By Graham Kendrick
- [Guide My Feet](#) – African American Heritage Hymnal #131, 작곡 Wendell P. Whalum. Morgan State University 합창단. 지휘: James Abbington
- [Hold On, Help Is On The Way](#) – Georgia Mass Choir
- [I'm Gonna Live So God Can Use Me](#), Chalice Hymnal #614
- [I Need You to Survive](#) – Hezekiah Walker
- [Isaiah Song](#) – Maverick City Music
- [Jesu, Jesu](#), Chalice Hymnal #600
- [Lean on Me](#) – Bill Withers
- [Let Justice Rain](#) – The Many
- [Stand by Me](#) – Ben E. King
- [Table of Love](#) – By Andra Moran
- [This Table is Yours](#) – By The Porter's Gate
- [We Shall Overcome](#) – Freedom Singers
- [What's Going On](#) – Marvin Gaye

저작권 및 라이선스 안내 (Copyright and Licensing Notice)

이 예배 자료에 포함된 곡명, 찬송가, 성가, 음악 선곡은 오직 예배 계획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회중, 사역 기관, 단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과 가사의 복제,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녹음, 인쇄, 배포에 필요한 모든 허가, 라이선스, 저작권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산하 Disciples Home Missions (DHM)는 본 자료에 언급된 어떠한 음악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사용 허가를 부여하지 않으며, 회중의 저작권법 준수, 라이선스 요건, 보고 의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사용하는 분들은 자신의 저작권 라이선스 제공업체와 상담하여 사용 전에 모든 필요한 허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Children Worship Wonder & Welcome)

Laura Ann Phillips 목사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프로그램 디렉터, Disciples Home Missions



공동체 안의 하나님의 백성

(The People of God in Community)

Sonja M. Stewart와 Jerome W. Berryman의 *Young Children & Worship*에 실린 "유배와 귀환"을 각색함
(이사야 58:6-10)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영상 링크는 행사일에 가까워지면 제공됩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제자회 선교주년을 위해 Disciples Home Missions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기독교교육, 소그룹 모임이나 묵상 시간 등 다양한 신앙 공동체의 자리에서, 모든 연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천천히 사막 상자(Desert Box)를 가져와 이야기 원 가운데 놓습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이야기 선반(Sacred Story Shelf)으로 가서 '포로와 귀환 (Exile and Return)' 자료가 담긴 트레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원으로 가져옵니다. 트레이를 자신의 곁에 내려놓고, 잠시 조용히 앉아 이야기의 의미가 마음속에 차오르도록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막 상자입니다.

사막 상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십시오.

안에는 사막의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조각을 우리 방에 두어야 합니다.

손을 천천히 모래 위로 움직이며, 모래를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 사막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사막은 이상하고 거친 곳입니다. 밤에는 매우 춥지만 낮에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물은 거의 없습니다... 사막은 항상 변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양을 짓고 다듬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뒤로 앉으십시오. 모래에 10 센티미터 정도의 정사각형을 그리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정사각형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십시오:

이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그 성스러운 도시를 자기 것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각형의 윤곽을 손으로 천천히 문질러 지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사막을 지나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그곳은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상자의 가운데에 무거운 사슬을 놓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바빌론은 새로운 왕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새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두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사슬 한쪽 끝으로 옮기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열 가지 삶의 길(The Ten Best Ways to Live)'을 다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잊곤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있던 자리로 다시 옮기되, 서로 떨어져 있도록 배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둥글게 모아 놓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길을 다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이사를 꺼내어 놓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씩 서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 더 흩어 놓아 각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배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 곁에 돌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얽매어 자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끈을 감아 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한 사람을 배고픔에 쓰러진 것처럼 눕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도, 가족도, 자신을 지켜 줄 사람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돌을 치워 바구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라

끈을 풀어 바구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라

쓰러져 있던 사람을 다시 세우며 말합니다

굶주린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어라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을 이사야를 포함한 원 안으로 다시 초대하며 말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맞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라.

모든 사람을 서로 더 가까이 모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돌볼 때, 빛이 온다."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때, 빛이 온다."

"필요한 이들과 나눌 때, 빛이 온다."

사람들 가운데 촛불을 놓고 불을 붙입니다 (또는 전자초의 불을 켜줍니다).

빛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빛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Wondering 질문을 시작합니다.

Wondering 질문들

-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 누군가가 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
-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맞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빛'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 사람들은 빛 가운데 함께 모여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빼더라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준비물

- 사막 상자
- 하나님의 백성(구약 이야기에서)
- 이사야(대림절 이야기에서)
- 무거운 사슬(유배와 귀환에서)
- 사람들을 위한 바구니
- 끈/줄과 돌을 위한 바구니
- 얇은 초(실제 촛불을 사용할 경우 성냥 포함)
- 재료를 담은 쟁반

성찬 묵상, 초청, 그리고 기도 (Communion Meditation, Invitation & Prayer)

Adam Harmon 목사

지방회장, Christian Church in Georgia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복잡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손에 빵을 쥐고도 그것을 떼어 나누지 않은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웃을 보면서 외면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 성찬의 식탁에 함께 모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이 식탁에 모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식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시며, 우리에게 같은 초대를 건네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가져와 기꺼이 나누어라.

오늘 우리가 떼는 이 빵은 단지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빵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 보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식탁에 초대받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으며, 누구도 밖에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약속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희의 빛이 비칠지도 모른다'거나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네가 네 빵을 굽주린 이와 나눌 때, 고통받는 이의 필요를 채워 줄 때, 네 이웃을 외면하지 않을 때, 너의 빛은 반드시 떠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식탁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식탁에서 받은 빛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성찬으로의 초청

예배 인도자는 회중이 성찬을 받기 전에 실제 물건 하나를 앞으로 가져오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본 영수증, 열쇠, 자신의 일에 사용하는 도구, 또는 '시간', '집', '재능', '함께함'과 같은 단어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도 좋습니다. 이 물건들은 성찬상 위나 그 주변에 놓습니다. 이는 각자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내놓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각 공동체의 예배 문화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어쩌면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식탁 곁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성찬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손에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빵과 잔,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친절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희생보다 편안함을 선택했고, 함께하기보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지나쳐 왔고, 손에 빵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꼭 붙들고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아는 사람으로 이 식탁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과 함께 빵을 떼시고, 자신을 저버릴 사람들의 발까지 씻기시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배우는 사람으로 이 식탁에 나아옵니다.

이 빵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굽주린 이들과, 집 없는 이들과, 잊혀지고 소외된 이들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소서.

우리가 이 식탁에서 행하는 이 예식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빛어 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떼는 이 빵이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나누는 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주님의 빛이 새벽빛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회중을 위한 성찰 질문

설교, 주보, 소그룹 모임 또는 회중을 미리 초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것을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세상과 나누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예배에서 차리는 이 식탁은, 세상에서 굶주리는 이들의 식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자회(Disciples)는 성찬의 식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함께 빵을 떼는 일은 세상에서 굶주리는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실천하는 성찬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 가고 있습니까?

3.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더 밝게 빛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의 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어디에서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봉헌 묵상/나눔으로의 초청 (Offering Meditation/Invitation to Generosity)

Melissa R. St. Clair 목사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신앙과 나눔 센터 상임이사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날 수 없고, 저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해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 (Everyone)'입니다.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갈 수 없고, 저도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해도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모든 곳(Everywhere)'입니다.

우리가 결코 채울 수 없는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채울 수 없고, 저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필요(Every Need)'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모두(Every Thing)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종교적 의식을 지켰으며, 신실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듣기에는 아프지만 분명한 진실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문제는 너희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너희의 예배가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희의 금식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너희의 경건은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너희의 신앙은 자비와 긍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깊은 신실함으로 부르십니다:

- 불의의 사슬을 끊어 주고,
-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 굶주린 이들과 빵을 나누고,
-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주며,
-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6-7)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지막 찬송이 끝날 때, '아멘'으로 예배를 마칠 때, 또는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이웃의 삶이 온전히 살아나도록 힘쓰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번 주 우리는 'Disciples in Mission: Everyone. Everywhere. Every Need.'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 주 어떻게 이 사역을 기념했는지 한 문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힘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필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이번 주 함께 기념하는 [Disciples Mission Fund](#)를 통해 더 넓은



교회의 선교를 지원하는 우리의 헌금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드립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시간, 재능,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함께 이 예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굶주린 이들이 먹을 것을 얻고, 이웃이 돌봄을 받으며,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며 기억합니다. 나눔은 예배와 분리된 행위가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방식이며,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제안

'모든 사람(Everyone)'에는 모든 연령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나눔과 베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이라는 문장을 카드에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초대한 후, 그 카드를 헌금 바구니에 넣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함께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지역사회나 카운티 지도를 준비하거나 출력하십시오. 이사야 58 장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러분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역의 장소를 핀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역이 어떤 협력 관계인지 설명하는 안내표를 함께 마련하십시오.

선교 협력 기관이나 사역의 동역자를 예배에 초청하여,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이 그들의 선교와 사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히 나누도록 하십시오. (간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Center for Faith & Giving의 『2026 Stewardship Theme Materials Campaign Guide』](#) 24쪽을 참고하십시오.)



성찰

-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 사역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초대하고 계십니까?
- 내가 나누도록 부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재능, 관계, 그리고 자원 가운데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천을 요하는 필요는 무엇입니까?

봉헌을 위한 기도 (Prayers for Offering)

Zaemelys Ramos-Rodriguez, 평신도 지도자
Casa de Refugio Christian Church, 캘리포니아주 코비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풍성한 사랑과 보호,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게 합니다. 주님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섬기게 하소서. 이 예물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돌봄,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섬김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 저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요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제 충분히 오래 도망쳤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비전, 그리고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제자로서(Disciples in Mission), 너그러운 마음과 기꺼이 섬기는 손으로 모든 필요에 응답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위한 도입 (Sermon Starters)

Lee Hull Moses 목사

담임목사, Central Christian Church,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선교하는 제자들 —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필요.

이사야 58:6-10 (표준새번역)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 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본문을 살펴보다 (Consider the Text)

이 본문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걸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예언자 이사야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 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인 1-39장은 주변 왕국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 가는 위협 속에 있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40-55장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마지막 부분인 56-66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삶을 세워 가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환은 그들이 기대했던 기쁨의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이전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맞이한 것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가 된 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치 다시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와 신앙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 깊은 좌절과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사야 58:3) 이에 대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형태의 예배와

신앙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중심에 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건한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언자는 방황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현대적 적용 (Modern-Day Connections to Scripture)

이사야의 이 본문과 잘 어울리는 현대의 이야기가 뮤지컬 *Come From Away*에 나옵니다. 이 뮤지컬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직후, 캐나다 북동부 뉴펀들랜드(Newfoundland)에 있는 작은 마을 갠더(Gander)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영공이 폐쇄되자, 비행 중이던 모든 항공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항공기에게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인구가 겨우 1,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갠더의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날 갠더 국제공항에는 38대의 항공기가 착륙했고, 7,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그곳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떠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거의 일주일 동안 그 작은 마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갠더의 주민들은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마을 회관,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개방하여 머물 곳을 제공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나누었고, 자신의 옷을 내어주었으며,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필요한 물품을 모았습니다. 아기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를 마련했고, 마을의 약국은 필요한 처방약을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식료품점은 세면도구를 기부했고, 주민들은 담요와 베개, 침구를 가져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마다 임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변 세상이 테러의 충격과 여파로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갠더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침서도 없었고, 따라야 할 매뉴얼이나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나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방향을 잃음과 다시 방향을 찾아감, 연민과 섬김, 그리고 '집'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에 빠져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을 때, 예언자는 그들에게 서로를 돌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갠더의 주민들과 먼 곳에서 온 사람들 (come from away)은 서로를 섬겼고, 바로 그 섬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의 연결 (Connections to Scripture)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58:6-10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음의 성경 본문들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설교에서 이 본문들을 반드시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오늘의 본문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4] 이사야 본문에 나타나는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오른다'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21-22]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던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10절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35-3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다." 예수님과 예언자 이사야는 모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의 설교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 58:6-10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까?

더 생각해 볼 것들 (Food for Thought)

기억하십시오. 회중 안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설교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할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푸드 팬트리나 의류 나눔 사역을 하고 있다면, 꾸준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에게 섬김의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해 보십시오. 지역사회에서 옹호(advocacy)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을 나누도록 초대해 보십시오. 또한 노숙을 경험했던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예배에 초청하기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복지 담당자를 초대하여 주거, 의복,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너무 쉽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은 우리를 익숙한 편안함에서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이사야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허무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와 참여를 요구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웃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돌보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푸드 팬트리에서 음식을 나누거나 지역 노숙인 쉼터를 후원하는 일에는 비교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을 경험하는 이웃을 우리 집의 손님방으로 초대하는 일에는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도전적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나오는 '치유(healing)'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이 받게 될 돌봄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과 치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 치유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행동하고 섬기는 사역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의할 점들 (Notes of Caution)

이 본문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설교에서 사용할 때에는, 특히 미국의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이 은유로 사용되어 온 복잡한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과 '흰색'이 선함과 연결되고, '어둠'이나 '검은색'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의식하십시오. 이러한 맥락을 균형 있게 바로잡기 위해, 설교에서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새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도를 전제하기 쉽습니다. 곧,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받은 선한 교회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교를 듣는 회중

가운데에는 과거에 그러한 도움을 직접 받아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낮추거나 시혜적인 태도로 비치지 않으면서 섬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 본문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놓치기 쉽고,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져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굶주린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햇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지역사회에서 침묵 당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 (A Prayer for the Preachers)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과 씨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그들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숨결이 그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소서.

필요할 때 회중을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예언자로 부름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회중을 한 걸음 더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은유함과 공허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설교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벽이 밝아오듯 그들 안에 떠오르셔서 새로운 영감으로 채워 주십시오.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한 주간의 무거운 필요와 책임이





그들을 짓누를 때에도,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 말씀은 설교자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생각해 볼 질문들 (Questions to Ponder)

여러분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섬김의 사역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역들은 이사야가 선포한 부르심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혈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역을 설교 속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정의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부름받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아직 교회가 더 성장해야 할 영역이라면, 이번 설교를 통해 어떻게 회중이 그 부르심을 더 깊이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정의와 섬김의 사역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 역시 그 과정에서 변화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 자신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점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낯설고 길을 잃은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인정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희망의 응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백성이 이웃의 필요를 돌볼 때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며, 네 어둠이 한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빛이 떠오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사전 녹화 설교 (Pre-recorded Sermon)

Chris Dorsey 목사

Disciples Home Missions 회장 겸 CEO,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설교 링크는 행사일에 가까워지면 제공됩니다.)



(표준새번역):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9 그 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 10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응답의 기도 (Litany of Response)

韓敬歆 - Ching-Hsin (Steven) Han

生命樹基督教會 - First Christian Church of El Monte, 캘리포니아주 엘몬테

- 인도자:**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곧, 불의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든 장벽과 우리가 외면한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은사가 환영 받으며,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 받을 때까지, 우리를 불러 모든 멍에를 꺾게 하소서.
- 회 중:**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모든 멍에를 꺾게 하소서.
- 인도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여호와 이레), 주님께서는 굶주린 이들과 우리의 빵을 나누라고 부르십니다. 배고픈 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식료품과 약값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서, 푸드 팬트리의 선반이 비어 있는 곳에서, 쌓아 두는 빵은 빼앗긴 빵이 되고, 나누는 빵은 축복받은 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 회 중:**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빵을 나누게 하소서.
- 인도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고 혈벗은 사람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자동차 안에서, 다리 밑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잠을 청하는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만 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벽을 세우는 손이 아니라 환대의 자리를 만드는 손을 허락하소서.
- 회 중:**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환대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소서.
- 인도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여호와 라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새벽처럼 비치고 우리의 치유가 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의 짐이 사람마다 불평등하게 지워지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이 늦어지거나 거부되거나, 너무 비싸서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온전함이 일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소서.
- 회 중:**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치유를 전하게 하소서.
- 인도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굶주린 이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때, 우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은사와 삶의 모든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교를 위해 다시 헌신합니다.
- 회 중:**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곳에서, 모든 필요를 향하여. 우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오르게 하소서. 아멘.



축하의 순간 (Moment of Celebration)

Brenda Booth 목사

상임이사, Isaiah 58 Ministries,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필요”

인도자: 오늘 Disciples Mission Sunday를 함께 지키며, 우리는 선교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박동입니다. 먹을 것과 존엄, 희망과 정의, 공휴와 소속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회 중: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우리는 문을 활짝 여는 교회들을 기뻐합니다. 신실하게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을 기뻐합니다. 함께 나눈 식사와 나누어진 옷, 드러진 기도와 회복된 관계, 그리고 새롭게 피어난 희망을 기뻐합니다.

회 중: 우리는 공휴로 행하는 모든 섬김이 소중함을 기뻐합니다.

인도자: 도시와 작은 마을 곳곳에서, 예배당과 친교실, 쉼터와 학교, 그리고 이웃의 거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제자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회 중: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곳에서. 모든 필요를 향하여.

인도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함께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기뻐하며 소망합니다.

회중을 위한 축하와 나눔의 초대 (Invitation to Congregational Celebration)

예배를 마친 후, 각 교회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축하와 나눔의 시간(Moment of Celebration)'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이웃과 지역사회 협력 단체를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기
- 지역의 선교와 봉사 사역을 소개하는 선교 박람회(Mission Fair) 열기
-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이야기와 간증을 나누도록 하기
- 격려 카드를 작성하거나 돌봄 꾸러미(care package)를 함께 만들기
-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과 선교 사역 리더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기
- 공동체가 직면한 필요와 교회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적어 붙이는 "희망의 벽(Wall of Hope)"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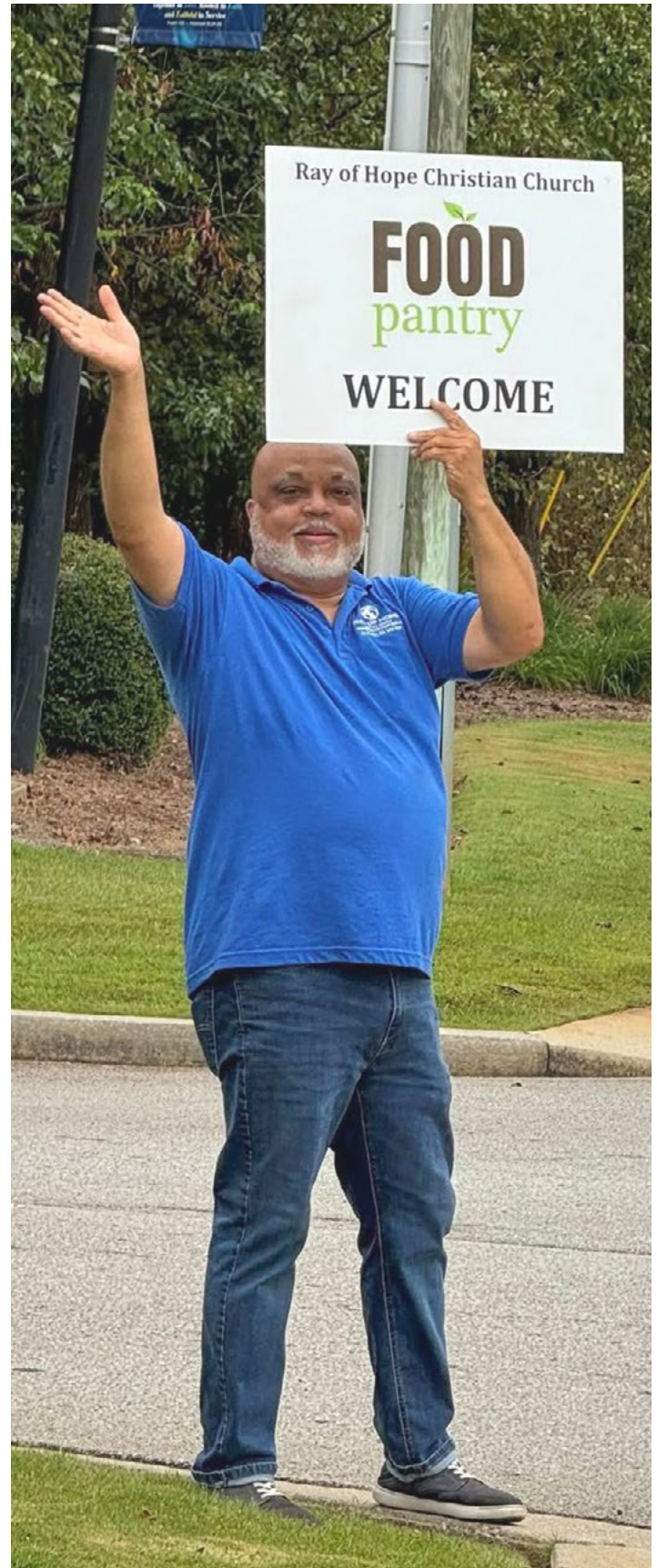


-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갖기

이러한 모임은 꼭 크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사람들이 진솔하게 함께 모이고,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며, 너무나 자주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를 넘어 관계를 맺을 때 찾아옵니다.

마침 기도 (Closing Prayer)

자비와 풍성함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용기와 너그러움,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수많은 모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우리가 단지 후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 내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의 지역사회로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기꺼이 환영하고, 어디에서든 섬기며, 모든 필요 앞에 은혜와 겸손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희망을 함께 나누고, 존엄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축도 (Benediction)

Gabrielle Davis 사역자

Light of the World Christian Church 회원,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석사 과정 학생

빛과 사랑 안에서 세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선교하는 제자로 나아가십시오. 가까운 곳으로도, 먼 곳으로도 나아가십시오. 이웃에게도, 낯선 이에게도 나아가십시오. 기쁨이 있는 자리에도,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도 나아가십시오. 불의의 결박을 풀고, 굶주린 이들과 여러분의 빵을 나누며, 낯선 이를 환영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그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에는, 작은 자비의 실천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킨덤(kin-dom))를 드러내는 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목소리, 긍휼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새벽처럼 비쳐 나오고, 여러분의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곳에서. 모든 필요를 향하여. 평안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사명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지금도 언제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기를 빕니다. 아멘.

각주 (Note): kin-dom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족됨(kinship),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강조하기 위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자신의 신학적 전통과 회중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나라(kingdom)' 또는 '킨덤(kin-dom)' 가운데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Special Thanks)

Disciples Mission Week 예배 자료집 준비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귀한 나눔 덕분에 이 예배 자료집이 온 교회에 의미 있고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Rev. Brenda Booth
Minister Gabrielle Davis
Rev. Dr. Adam Harmon

Rev. Daniel Lyvers
Rev. Derrick L. Perkins, team leader
Rev. Laura Ann Phillips

이 예배 자료집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시고, 이번 선교주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v. Derrick L. Perkins
Rev. Mollie Donihe Wilkerson
Rev. Daniel Lyvers
Rev. Jean-Daniel O'Donnada
Rev. Laura Ann Phillips
Rev. Dr. Adam Harmon
Minister Gabrielle Davis

Rev. Melissa St. Clair
Ms. Zaemelys Ramos-Rodriguez
Rev. Dr. Lee Hull Moses
Rev. Chris Dorsey
韓敬歆 – **Rev. Ching-Hsin (Steven) Han**
Rev. Brenda Booth

번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v. Dr. Miseon Choi (한국어)
제자회 태평양 서남지방회 여성사역 코디네이터

Lorna B. Ramos (스페인어)
크리스천 소명 사무국 디렉터, DHM

켄터키주 렉싱턴(Lexington, KY)의 Brad Wilson께서 훌륭한 디자인으로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Disciples Mission Week의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Disciples Home Missions의 지속적인 사역과 선교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기부 페이지 (Donate Page) 또는 QR 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Disciples Mission Week와 Disciples Home Missions의 사역을
너그럽게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isciples Mission
HUB

Powered by Disciples Home Missions